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40원 하락한 1271.40원에 마감

27일 환율은 전일대비 3.40원 하락한 1,271.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80원 하락한 1,273.00원에 개장했다. 중국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환율은 네고 물량의 하방 압력이 더해지면서 장중 1,260원대 중반까지 내리기도 하였다. 다만 장 막판 결제수요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축소하여 1,271.4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달러 인덱스는 104선을 밀돌았으며, 장중 변동폭은 9.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7.22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73.00	1275.00	1265.10	1271.40	1268.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58.64	959.70	950.85	952.0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5.40	1357.57	1345.51	1352.9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2	-2.3	-8.03	-19.73
결제환율(수입)	0.05	-1.5	-6.7	-17.4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달러 강세 전환에... 1,270원 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0)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71.40원) 대비 1.20원 상승한 1,271.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말 거래 부진 속 달러 강세 전환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도입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소비부진 등 경기침체 우려 영향에 달러가 강세 전환되고 달러인덱스도 전일 대비 상승하였다. 또한, 미 국채금리는 내년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에 급등하고, 위험선호 약화에 나스닥지수 및 S&P지수 등 주요 뉴욕증시가 하락한 점도 금일 코스피 시장 및 원화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 네고물량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63.50 ~ 128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82.7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60원 ↑
	■ 美 다우지수 : 33241.56, +37.63p(+0.1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54.5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66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